요나와 삭개오

김 옥 겸(한국호스피스협회 회계이사, 세브란스 호스피스 간호사)

어릴 적 주일학교에 다닌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요나와 삭개오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들었을 것이다. 나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지냈다는 요나의 이야기와 작은 키로는 군중에 둘러싸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뽕나무에까지 기어 올라갔다는 삭개오의 얘기를 정말 재미있게 들었던 기억이 있다.

이제 어른이 되어 강산이 다섯 번이나 변하는 정도의 나이를 먹고 그 중에 10년 넘는 세월을 호스피스에 몸담고 있다보니 성경 속 이 두 사람이 재미 이상의 의미로 다가오곤 한다.

처음에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고 싶은 욕심에 용감하게 호스피스 일에 뛰어 들었지만, 작은 키가 원망스럽고 떨어질까 두려웠던 삭개오처럼 내 능력의 부족함이 원망스럽고 이 일을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두려워하기도 했다. 그 때는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서 환자를 만나기 전부터 만나고 나온 후까지 오직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래서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날들을 지냈었다.

그런데 지금의 나는 지쳤다는 핑계와 경험의 축적이라는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곳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본다.

요나의 경우와는 많이 다르지만, 호스피스 일을 하다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나에게도 가끔 생긴다. 어느 죽음인들 안타깝고 아깝지 않은 것이 있겠나마는 그래도 특히 어린아이들의 투병과 죽음이라든지, 정말 큰일을 할 하나님의 일꾼의 죽음, 또는 한 가족에게 닥치는 이중 삼중의 고난 등이 그것인데, 그럴 때는 어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안타깝고 답답하기도 하다. 게다가 아직도 국가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는 호스피스의 열악한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그만 나도 요나처럼 발길을 돌려 호스피스 일을 그만 두고 싶은 때도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바다.

그러나 삭개오도 요나도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인물들이다. 자진해서 일을 시작했건,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호스피스 일을 계속하고 있건 간에 호스피스 종사자 또한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요나와는 달리 밝고 즐겁기만 한 다른 곳으로 향하고 싶은 발걸음을 돌이켜 생애에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호스피스환자와 그 가족에게 향함으로써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이다.

항상 처음 시작할 때의 그 마음으로, 열심과 사랑으로 호스피스 일을 해 나가도록, 나뿐 아닌 우리 한국호스피스협회의 모든 회원들과 함께 다짐해보고 싶은 이 가을이다.